

2024년 8월 13일 아크릴, 광주경찰청, KAVA 회의록

- 일시 : 2024년 8월 13일 (화) ○ 장소 : 아크릴 11층 회의실
- 참석자 : 김종희 이사(아크릴), 박민정 경위(광주경찰청), 임종순 사무국장(KAVA)
- 논의 내용 : 인공지능 기반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능 요구사항 검토

1 광주경찰청 요구사항 정리

1)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-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요청됨

목표	기존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온라인화하고, LLM(대규모 언어 모델)과 연계하여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함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존 체크리스트는 피해자와 경찰관이 함께 작성해야 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.- 광주경찰청 내부 논의 결과, 이 시스템을 비대면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경찰서 내에서 PC나 태블릿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함.- 시스템은 희망타운 홈페이지에 탑재되지만, 실제 사용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며, 특별한 경우(타지역 또는 장애인 등)에만 온라인으로 진행.
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는 기본 12문항에서 최대 22문항까지 피해자가 작성하며,- 경찰관은 추가적으로 6문항을 작성함.- 작성이 완료되면, 점수 계산과 함께 위험도 등급이 결정되며, 경찰관이 최종 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- 경찰관 모드와 사용자(피해자) 모드의 인터페이스가 별도로 존재해야 함.- 개인정보 동의체계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
자동화 목표	- 사용자가 MBTI와 유사한 방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, LLM이 자동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고 경찰관 모드와 통합된 결과를 제공
특징	- 사용자(피해자) 모드와 경찰관 모드가 각각 존재하며, 피해자가 문항별로 메모를 남길 수 있어 LLM이 풍부한 종합의견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

2)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(VTS) - 점수합산 기능 우선 필요

- 23문항으로 구성된 1~5점 척도 기반 체크리스트로 범죄 발생 1개월 이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.
- MBTI와 유사한 방식으로 웹에서 피해자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우선 개발 대상.
- LLM을 통해 보다 상세한 트라우마 설명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, 현재 자료는 부족함.

3) 상담 챗봇

- 경찰청의 매뉴얼을 학습한 LLM 챗봇을 통해 일반적인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
- 현재 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챗봇 예시([링크](#))와 성능의 차별화를 박민정 경위가 본청에 언급하였음

2 토의

[아크릴] 김종희 이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체크리스트의 탑재 및 구현을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 기술 담당 직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음.
[광주경찰청] 박민정 경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존 광주경찰청장은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발령 예정으로 우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,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- 경찰청 본청 미래치안국과의 회의 결과, 현재 기획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, 9월 중 아크릴, KAVA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기를 희망-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9월에 데모 시연이 가능하도록 준비되면 좋겠음
[KAVA] 임종순 사무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광주경찰청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, 아크릴이 샘플 모델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겠음.- 오늘 회의 내용을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정리해 수일 내에 공유하고, 이를 토대로 줌 회의를 열어 신속히 소통하도록 지원하겠음.- 정리된 자료는 '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'에 KAVA가 제출하겠음.